

시각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기획 - 사진 교육을 중심으로

Educational Content Design for VCAE

- focusing on photo in education

김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Kim ji-young

Ph.D. course, Dept. of Global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최근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카메라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진 교육은 관찰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성 등을 키울 수 있는 다각적 교육이 될 수 있어 앞으로의 예술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21세기 문화산업의 시대에 시각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성장, 디지털 매체의 폭발적인 수요로 사람들은 점차 문자보다 이미지를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웹(web)상에 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일상화되었다. 이것은 여러 시각문화 중에서 특히 사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그동안의 사진 교육은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사진을 제대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교육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진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본 논문은 사진을 예술 교육콘텐츠의 한 방안으로 사진 교육의 필요성과 사진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해보았다.

II. 사진 교육의 필요성과 사진 교육의 방향

교육인적자원부의 미술교육과정에는 ‘시각문화교육(VCAE: Visual Culture Art Education)’이 있는데 사진도 다양한 시각문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수동카메라는 필름을 구매해야 하고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가 다루기에 번거로운 필름의 현상, 인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디지털카메라는 특별한 장비와 절차가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하고 난 후 완성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줄고 편리해져 디지털카메라는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개인 블로그와 미니홈피가 유행하면서 사진은 특히 사람들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사진이나 기타 다른 영상매체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진 교육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다.

1. 사진 교육의 필요성

사진 교육의 필요성은 3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진은 여러 가지 영상매체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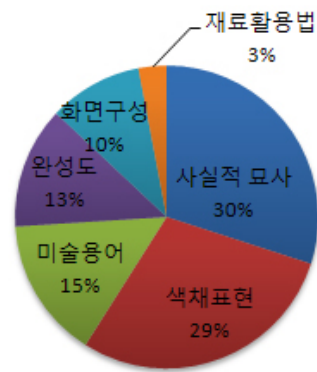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처 문자언어에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을 통해 수많은 영상매체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각 문화교육 중 영상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상매체를 알고 활용하기에 앞서 가장 기초적으로 습득하여야 할 부분은 화면구성과 프레이밍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의 기본은 사진이라 할 수 있다.

늘 같은 모양의 사물일지라도 매번 새로운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어떠한 대상을 선택해서 바라볼 때 어떤 프레임 안에 어떻게 사물을 놓고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 각 사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 카메라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진 교육은 향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상매체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진은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매체로 충실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사진의 재현성과 과학적 프로세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카메라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도 조작과 활용이 용이하므로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화면구도나 색을 통한 감정의 표현, 빛과 그림자, 렌즈의 효과 등 사진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표현력들은 말과 글을 대신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사진은 아이들의 창작과 표현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정임(2007)의 <미술교과에 대한 학습자 실태조사>에서 미술과목의 여러 가지 분야 중 '사실적 묘사'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조사를 통해 예전과 다름없이 아직도 미술이란 기능 위주의 제작표현에 기준을 두고 있고 대상을 최대한 똑같이 묘사해야 하는 미술수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1. 미술과목에서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은 스스로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여겨 미술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수업에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표현은 아이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뛰어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창작과 표현활동에 자신감을 주어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2. 사진 교육의 방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진을 가르친다고 하면 수업의 내용은 사진의 테크닉과 카메라 사용법 및 여러 가지 장비의 활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진이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에 의해 재현되다 보니 사진을 잘 찍는 기술적인 부분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듯이 사진도 촬영하기 전에 무엇을 찍고 어떻게 화면구성을 하며 왜 찍는가에 대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이것은 그동안의 사진 교육이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사진으로 무엇을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음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사진 교육에 있어서 카메라는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카메라 안에 항상 사각형 모양의 프레임이 있듯이 이 프레임을 사고

(思考)의 프레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각자 나름의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사진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새로운 예술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미 많은 아이들이 사진에 친숙한데 이 친숙한 도구가 학교수업에 사용된다면 아이들은 분명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사진은 일단 '찍는' 행위에 불과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을 찍는 것 외에 사진을 읽고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느끼게 되어 사진의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진 교육은 지금 시작시점에서 있다. 사진 교육이 앞으로의 예술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 [1] 정재한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진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집, pp.98-111, 2009.
- [2] 김홍숙 “초등미술에서 시각 문화 교육의 방향”, 한국미술교육학회논문지, 제22집, 3호, pp.1-18, 2008.
- [3] 김성숙 외, 미술교육과 미술문화, 학지사, 서울, 2003.
- [4] 하효원, 비주얼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중등미술 지도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박정임,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work sheet'를 활용한 감상 및 표현지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